

2012년 1월 13일 공보 2012-1-14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2012년 1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

문의처 :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차장 이환석

Tel : 759-4424 Fax : 759-4485 E-mail : hslee@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 세계경제 ]

- 세계경제를 보면, 선진국 경제가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도 다소 약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경제 성장을

	(전년동기비, %)					
	10.2/4	3/4	4/4	11.1/4	2/4	3/4
전세계 <sup>1)</sup>	5.3	5.0	4.7	4.3	3.7	3.6
선진국 <sup>1)</sup>	3.3	3.4	2.9	2.2	1.5	1.3
미국 <sup>2)</sup>	3.8	2.5	2.3	0.4	1.3	1.8
유로지역	2.1	2.1	2.0	2.4	1.6	1.3
일본	4.4	5.4	3.1	-0.2	-1.7	-0.7
신흥시장국 <sup>1)</sup>	8.3	7.3	7.2	7.3	6.8	6.7
중국	10.3	9.6	9.8	9.7	9.5	9.1

#### 유럽국가 CDS 프리미엄

	(기말 기준, bp)			
	11.10월	11월	12월	12.12일
그리스	3,516	8,112	8,786	7,479
포르투갈	971	1,066	1,082	1,065
스페인	341	407	380	394
이탈리아	446	480	484	491
아일랜드	697	718	724	670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11.9월)

2) 전기비연율

자료: IMF, Bloomberg

자료: Bloomberg

## [ 실물경제 ]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은 꾸준한 신장세를 이어갔으나 내수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전월보다 감소하는 등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는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저조한 상태에 머물다가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11.2/4	3/4	4/4	11.9월	10월	11월	12월		
GDP 성장률	6.2	..	3.4	3.5	..	-	-	-	-	-	
GDP 민간소비	4.1	..	3.0	2.0	..	-	-	-	-	-	
소매판매	6.6	..	5.7	4.4	..	2.8	2.2	0.5	..		
(S.A, 전기비)	-	-	(0.2)	(2.3)	(..)	(-3.2)	(0.6)	(-0.6)	(..)		
GDP 설비투자	25.0	..	7.5	1.0	..	-	-	-	-	-	
설비투자지수	25.1	..	4.8	-3.5	..	-4.1	-11.4	-3.7	..		
(S.A, 전기비)	-	-	(3.0)	(-0.8)	(..)	(-2.0)	(-11.7)	(7.7)	(..)		
GDP 건설투자	-1.4	..	-6.8	-4.6	..	-	-	-	-	-	
건설기성액	-3.3	..	-6.6	-8.3	..	-0.9	2.7	-8.6	..		
(S.A, 전기비)	-	-	(3.5)	(-5.8)	(..)	(4.8)	(2.8)	(-9.2)	(..)		
수출(통관)	28.3	19.6	18.7	21.4	11.0	18.1	7.8	12.7	12.5		
(일평균, 억달러)	(16.8)	(20.3)	(20.8)	(20.3)	(20.1)	(21.1)	(20.8)	(19.4)	(20.3)		
제조업 생산	16.7	..	7.4	5.1	..	7.0	6.5	5.9	..		
서비스업 생산	3.9	..	3.3	4.2	..	3.8	3.4	2.6	..		
취업자수 증감 <sup>1)</sup>	323	415	402	363	474	264	501	479	441		
(공공부문 <sup>2)</sup> 제외)	395	424	436	353	485	263	488	528	438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물 가 ]

- 지난해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가공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계속 4%를 상회하였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및 수요압력 완화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동월대비, %)				
	<u>11.8월</u>	<u>9월</u>	<u>10월</u>	<u>11월</u>	<u>12월</u>
■ 소비자물가 (전월비)	4.7 (0.7)	3.8 (-0.1)	3.6 (-0.2)	4.2 (0.1)	4.2 (0.4)
▪ 석유류	14.8	16.3	17.0	16.0	11.0
▪ 가공식품	7.0	7.3	7.4	8.2	8.6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3.5	3.3	3.2	3.5	3.6
■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2.8	2.6	2.6	2.8	2.7

-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 가격은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지방에서는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모두 둔화되었다.

	(전월비, %)				
	<u>11.8월</u>	<u>9월</u>	<u>10월</u>	<u>11월</u>	<u>12월</u>
■ 주택 매매가격	0.5 (0.7)	0.5 (0.7)	0.4 (0.5)	0.4 (0.6)	0.2 (0.2)
▪ 서 울	0.0 (-0.1)	0.0 (-0.1)	0.0 (-0.1)	-0.1 (-0.2)	-0.1 (-0.2)
▪ 경 기	0.1 (0.1)	0.1 (0.1)	0.1 (0.1)	0.0 (0.0)	-0.1 (-0.1)
▪ 지 방	1.0 (1.6)	1.1 (1.5)	0.9 (1.2)	0.9 (1.3)	0.6 (0.7)
■ 주택 전세가격	1.1 (1.5)	1.4 (1.8)	0.9 (1.1)	0.5 (0.7)	0.1 (0.1)
▪ 서 울	1.3 (1.7)	1.7 (2.2)	0.9 (1.0)	0.2 (0.3)	-0.1 (-0.2)
▪ 경 기	1.4 (1.7)	1.8 (2.1)	1.0 (1.1)	0.0 (0.0)	-0.3 (-0.4)
▪ 지 방	0.9 (1.5)	1.2 (1.6)	1.0 (1.3)	0.9 (1.3)	0.5 (0.6)

주 : ( ) 내는 아파트 기준  
자료 : 국민은행

## [ 금융시장 ]

-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에 대한 불안심리,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그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u>11.8월</u>	<u>9월</u>	<u>10월</u>	<u>11월</u>	<u>12월</u>	<u>12.1.12일</u>
■ KOSPI지수 <sup>1)</sup>	1,880.1	1,769.7	1,909.0	1,847.5	1,825.7	1,864.6
■ 원/달러 환율 <sup>1)</sup>	1,066.8	1,178.1	1,110.0	1,143.0	1,151.8	1,158.2
■ CD(91일)금리 <sup>1)</sup> (%)	3.59	3.58	3.57	3.55	3.55	3.56
■ 국고채(3년)금리 <sup>1)</sup> (%)	3.49	3.55	3.51	3.38	3.34	3.38

주 : 1) 기말기준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 · 경제의 위험요인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